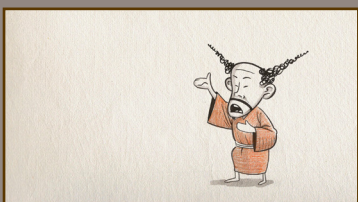


우리 하나님을 전해요!



나레이션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 한 분이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계속 눈여겨 보았습니다.

바울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의 눈빛이 남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소망과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나레이션

목사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울

이보시오! 거기 앉아계신 분!

장애인

저, 저 말씀입니까요..?

바울

지금 일어나 똑바로 서 보시오!

장애인

예? 아예... 알겠습니다요... 어, 어..? 다리에 힘이 좌악 올라오는데? 어? 어!!

나레이션

그러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와! 내가! 내가 걷는다! 내가 걷고 있다고! 보시오! 걷지 못하던 내가! 지금 걷고 있소!

사람들

(매우 놀라서 웅성거린다.)

사람1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지?

사람2

저 양반들이 누구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거야?

사람3

그래! 이건 기적이야 기적!! 다리를 고친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틀림 없어!

사람4

맞아! 신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야! 저기 저 말 잘하는 사람이 헤르메스 신이고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인가 본대?

나레이션

사람들은 하늘의 신들이 내려왔다고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급히 황소와 꽃을 준비해서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사제

어허~ 신께서 내려오셨다하~~

나레이션

이 모습을 본 바나바와 바울은 슬퍼하며 외쳤습니다.

바울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1

신이 아니라고? 그럼 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웅성웅성.)

바나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왔을 뿐입니다.

바울

우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오늘까지 흠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바나바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당신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 뿐이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래이션 두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면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멀리멀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